■ 불황에 고소득 전문직이 뜬다

불황속에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급증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한 보험설계사의 성공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삼성화재 순천지점 여수사업소의 방대혁 RC(31·사진). RC(Risk Consultant)는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를 일컫는 말로, 방씨는 최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8 영업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사내 공모전에서도 금상을 받았다.

### 삼성화재 순천지점 방대혁씨 성공스토리

## 1년만에 800만원대 월급

### 자신의 이름 브랜드화 고객에 스킨십 마케팅

방 씨의 수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설계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사실로 확인시켜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보험업계에 첫 발을 디딘 방 씨는 현재 월 평균 8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 설계사로 자리를 잡았다. 보험 일을 시작할 당시 목표로 정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 4천만원 상환은 12개월만에 완수했고 3년 안에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꿈도 얼마전 아파트 청약으로 단기간에 이뤘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독특한 마케팅이 있었다. 전력회사 기능직을 그만두고 보험설계사로 변신한 방 씨는 지금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주말에는 택시기사로 '쓰리잡'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다 많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그만의 영업전략으로 대리운전도 요일별로 동네를 정해 꾸준히 접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한 마케팅은 그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이 입는 모든 옷과 자동차에 '삼성화재 방대혁'이란 글자를 새겨 고객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심지어는 임신한 아내를 따라 산부인과에 가서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옷과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영업철학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는 출산을 앞둔 아내가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급히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한 고객의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에 먼저 들르기도 했다.

방씨는 "고객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뛰다보니 짧은 기간이지만 남 부럽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발로 뛰겠다는 의지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험설계사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 설계사가 무자본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손해보험 설계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3천782명이던 설계사가 1년만에 5천986명으로 2천204명이나 늘었다. 업계 최고 수준인 삼성화재 설계사의 월평균 급여는 315만원으로 전 업종 평균(212만원)보다 100여만원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8월말부터 실시된 생명보험사와의 교차보험제도로 인해 손보사 설계사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도전할 만한 직업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역 건설사 연말 자금 비상 '錢의

### 불황에 수주량 감소 대출마저 끊겨

### 5억~12억원 잔액 예치 '발등의 불'

건설업계에 대한 기업진단 기간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형 건설사의 연말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불황에 따른 수주감소 속에 은행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자본금 예치기간도 올해 30일 이상으로 늘어나 지칫 대규모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도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연말까지 면허 종류별로 5억~1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에 건설사의 자본금 평균잔액을 검증하는 것으로, 업체의 부실·퇴출 여부 등 기업진단에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업종별 평균 잔액은 ▲건축공사업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7억원 이상 ▲조경업 7억원 이상 ▲토건 12억원 이상 ▲산업설비 12억원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본금 잔액을 맞추지 못할 경우 당장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30억~40억원의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도 시공을 맡긴 시행사나 주거래은행 등을 찾아다니며 자금 융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소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돈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올해 수주감소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자금난이 커진 데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돈줄'이 바짝 말라붙은 것이다.

특히 올 들어 자본금 예치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업체들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자본금 잔액 예치기간을 기존 7일 안팎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업체들의 입장에선 이자부담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조경업 면허를 갖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올해 공사물량이 급감하고 은행 대출마저 끊긴 상황에서 7억원이 넘는 돈을 한 달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채를 쓰라는 말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예치기간 확대 등 관리 강화는 일부 부실 건설업체의 자본금 가장납입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개별 업체별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교생 보해양조 공장 견학**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조대부고 3학년생들이 24일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견학하고 있다. 보해는 수능을 마친 광주·전남지역 고교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공장 견학과 술자리 예절 특강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보해양조 제공〉

## '눈치보기' 대주단 가입 20~30곳

### 어제 1차 마감 … 광주·전남 2~3곳 등 중견건설사 신청

건설사들이 대주단(채권단) 가입 1차 시한인 24일 치열한 눈치작전 끝에 전국적으로 20개 이상의 업체가 가입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2~3개 업체 등 전국의 중견건설업체 20~30개가 가입을 신청했다.

광주·전남은 중견건설사인 A사와 B사가 신청서를 낸 데 이어 C사와 D사가 막판까지 절충 작업을 벌이는 등 지역 업체의 대주단 가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국내 100위권 업체가 9곳이 포함돼 있으며, 지역 주택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대주단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날 건설사들은 대주단 가입에 대한 혜택 및 불이익 여부 등을 놓고 고심하다 정부의 조기 가입 독려방침에 따라 오후 들어 신청이 잇따랐다.

정부와 은행들은 이날 대주단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장했다.

또 정부가 대주단 조기 가입사에 대해 환매조건부 방식 등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중견건설사들을 움직이는 데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당장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없는 대형 업체들은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건설은 이미 대주단 불참의지를 밝혔고, 삼성물산도 부정적인 반응을 견지하고 있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가입 여부를 검토는 하겠지만 신청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여성희망포럼' 주제 강연

### 여경협 광주·전남지부 나선희씨 강사 초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향덕)가 26일 오후 6시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여성희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나선희(나선희스피치커뮤니케이션즈 대표)씨가 강사로 나서 '따뜻한 리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나 대표는 이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스피치의 중요성 ▲스피치의 유형별 종류 ▲말하기에 대한 궁금증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메르비안의 법칙 ▲발표불안증 극복요령 등을 소개 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국세 불복 업무' 납세자 만족도 조사

## 광주지방국세청 1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사진)이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 하반기 국세 불복업무 납세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2.8점을 기록해 본청과 6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 62.7점을 얻어 5위에 머물렀던 광주국세청은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문자알리미 서비스로 제공하고,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조회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반기 평가에서 무려 20.1점이나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청 중 최초로 불복청구 납세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전화의견진술제도를 도입, 납세자에게 비용절감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9월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본청과 지방청이 결정한 불복청구 납세자와 대리인 1천226명이 참여했으며 적극성, 공정성, 신속성, 좋은 결정문, 친절도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김기주 광주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구제와 신뢰확보를 위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